



## [정책동향] 中, '유제품 품질 및 안전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 - 식품안전 강화 통해 자국산 유제품 신뢰 회복 도모



중국 정부가 식품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낙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개년 전략을 공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식 소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유제품 품질 및 안전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유제품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낙농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원유, 살균우유, 저온 살균 우유 및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가공기술 및 시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체 품질안전 검사율을 높이고 100% HACCP 시스템을 구축해 유제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중국의 최종 목표이다.

또한, 유제품의 안전 모니터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내부직원 및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부직원에게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의 유제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제품 혁신 및 기술 활용 등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유제품과 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외에도 유제품 수입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제품을 포함한 특정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 출처 : foodnavigator-asia.com, 1월 25일 >

## [과학기술] 美, 아플라톡신 M1 신속 검출 검사키트 개발

### - 단시간내 최대 600PPT까지 검출...항생제 잔류 여부도 동시 분석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M1이 전 세계 낙농업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더 빠르고 쉽게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식품안전 진단키트 개발 업체인 니오젠(Neogen Corp)은 원유 샘플의 독소를 단 몇 분 만에 최소 150에서 최대 600PPT(일조분율)까지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의 특허 받은 통합 분석 플랫폼을 통해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 원유 속 항생제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 과정을 간소화 시키고 검사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플라톡신 M1은 젖소의 반추위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로 미국, 브라질 등 대부분 국가의 함량 최대 허용치는 500PPT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selectscience.net, 1월 2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